



도 “민생 회복 추경 편성”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총력… 산불 대응 강화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대광법 통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 천영평 실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최근 일어난 산불 예방 대책과 대광법 국회 통과, 그리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생 경제 회복 위한 추경 편성 추진

천영평 실장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북자치도도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5월 입시회를 4월로 앞당기는 부분을 도의회와 협의 중이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는 민생 안정과 2036 올림픽 유치 지원이다.

천 실장은 “전북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합 산불 대응 강화

전북자치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천 실장은 “전북 지역에서 3~4월 사이 산불 발생률이 73%에 달한다”며 “올해 들어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6건이 집중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얼마 전 일어난 경남·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차량 22대와 현장 대원 59명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도내 산불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진화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 일행의 2036 하계



전북특별자치도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 위한 IOC 방문

전북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방문해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마티아스 케스트너 미래유치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나 지방 도시 간 연대와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유치 전략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신임 IOC 위원장인 커스티 코벳트리와의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천 실장은 “전북의 강점인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한 예산절감을 통한 기존 경기장 활용과 환경친화적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올림픽 경기대회 추진 등을 IOC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면담을 성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신임 IOC 위원장과 임원진들과의 접촉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형 정책 발굴 위한 벤치마킹 추진

전북자치도는 타 시도의 우수 정책을 참고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벤치마킹 시즌 4'를 추진 중이다. 올해 초부터 실·국별로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한 결과 171건의 제안이

도출됐으며, 오는 2일부터 18일까지 이를 발표하고 최종 우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천 실장은 “타 시도의 혁신 사례를 적극 반영해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라며 “벤치마킹을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대광법 국회 통과 추진

전북자치도에서는 이번엔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전북 정치권과 연대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전북자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대광법 통과 그리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라는 세 가지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대광법 국회 통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어서 모처럼 만에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전북 발전의 호기가 될지 도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전북중앙협력본부에서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기부금 전달식 및 전북사랑도민증 전달식 행사를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 되길”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전북자치도에 2000만원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 후 전북 1호 고액 기부자 탄생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서울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에서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 개인 한도 상향 이후 전북자치도에서 처음 이뤄진 고액 기부 사례로, 제도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해 지방재정을 돕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고액 기부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기부의 주인공인 최병오 회장은 국내 대표 패션 기업 ‘패션그룹형지’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1982년 의류업계에 입문한 후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등 중장년 여성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업계를 선도해 왔다. 현재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산업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전북 지역과도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 2005년 전주대학교에서 강연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패션학과에 발전 기금 1억 원을 기탁하고 ‘패스트렌드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졸업생 채용, 인턴십 운영, 명예박사 수여 등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이번 기부 역시 이러한 인연의 연장선에서 이뤄졌으며,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다.

최병오 회장은 “전북은 제 고향은 아니지만, 전주대학교를 비롯해 개인적으로 소중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며, “기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부가 전북의 청년과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북사랑도민증’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병오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의 취지를 실현한 상징적인 사례로, 많은 분이 전북과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기부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기탁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활용해 피해 지역에 생필품과 임시 주거 물품, 긴급 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비축해 둔 재해구호물

자 600여개도 지원해 대피소 등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원 외에도 정읍, 무주 등 도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구호물품과 식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 주거용 컨테이너 임대료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